



암행세제관

조선시대

현재는 조선시대이다. 이 시대에는 노비와 평민, 양반 등 신분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는 시대였다. 양반은 지배층을 의미하며, 평민은 일반사람, 노비는 누군가를 주인으로 모시는 가장 아래 신분을 의미한다.

노비

노비들은 관아에 속한 관노비, 개인이 소유한 사노비 등 그 종류가 다양했다. 그중에는 주인의 집에서 거주하는 노비도 있으며, 출·퇴근을 하는 등 개인의 집을 가진 노비도 있다. 노비의 가족이 있는 경우 모두가 한 집안 혹은 한곳에서 일한다.

원작 <암행> 소설 요약

조선 후기. 전국에선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. 작중 "송현우는 장원 급제해 임금의 명을 받아 암행어사로 임명되었다. 그러나 결혼식날 밤, 아내와 종들을 모두 무참히 베어 살해하고 옥에 갇혔으나, 현재는 탈옥하여 전국을 떠돌고 있다. 그 사건 이후 어명을 받아 "송현우"를 추적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암행어사인 "이명천"이다.

송현우

아내와 가족들을 살해하고 파직된 암행어사. 최근 옆 마을 삼랑포에서 나타난 집채만큼 큰 뱀을 단칼에 처치하고 유유히 사라졌다고 한다. 호위무사 한 명과 검은 개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특징이다.

이명천

현암행어사, 송현우에게 여동생이 살해당하여 깊은 분노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. 호위무사 한 명을 데리고 다닌다.

플레이어

당신은 현재 어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【암행어사】의 신분으로 【화거리】에 도착하였습니다. 본인의 마패를 활용하여 마을 주민들의 증언을 확보하고 마을을 탐색하여 사건과 연관된 증거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.